

영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정서적 가용성 및 영아의 정서적 반응성과 참여 간의 관련성*

The Relationship between Infant Temperament, Maternal Emotional Availability,
Infant Emotional Responsiveness and Involvement*

이형민(Hyungmin Lee)¹⁾

조복희(Bokhee Cho)²⁾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ariables of infant temperament, maternal emotional availability, infant emotional responsiveness and involvement. A total of 60 infants and their mothers participated in this study. Mother-infant dyads were observed and mothers then completed questionnaires. Data was analyzed by means of descriptive statistics, t-tests, Pearson's correlations and hierarchical regressions. In terms of infant emotional responsiveness, maternal sensitivity and non-hostility, these were revealed to have had an effect on infant emotional responsiveness. Moreover, infants who have mothers who had the ability to read their infants' emotional signals accurately, responded in appropriate ways and interacted with affection, showed a higher level of responsiveness. In terms of infant emotional involvement, maternal structuring had an effect on infant emotional involvement. That is, infants who have mothers willing to support their infants through appropriate guidance and facilitate their interaction were more emotionally involved during the play sessions. In conclusion, maternal sensitivity, non-hostility and structuring were all related to infant emotional responsiveness and involvement, however, the degree of the effects of these variables differed.

Key Words : 영아의 기질(infant temperament), 어머니의 정서적 가용성(maternal emotional availability), 영아의 정서적 반응성과 참여(infant emotional responsiveness and involvement).

* 본 논문은 2011년도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본 논문은 2011년도 한국아동학회 추계 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논문임.

¹⁾ 경희대학교 아동학 전공 박사

²⁾ 경희대학교 아동학 전공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Hyungmin Lee, Dongjak Gu Sadang Dong Samsung Apt. 204, Seoul 156-826, Korea
E-mail : miso2child@naver.com

I. 서 론

영아기는 신체적, 지적, 사회·정서적 발달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단계로 여러 영역의 발달의 기초를 이루는 인간 발달의 첫 단계이다. 따라서 영아기에 주 양육자가 제공하는 양육환경은 이후 아동의 발달에 누적적이며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Thompson, 2000).

생애 초기에 영아는 자신의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 특별한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이것은 전 생애 발달 중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을 지니는 정서적 유대관계인 영아와 어머니 간의 애착관계는 생애 최초로 맺는 사회적 관계로서 사회적인 이해를 형성하고 성격발달 및 인지, 사회, 정서 발달에 장기적인 영향을 나타낸다. 영아는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애착을 형성하며, 어머니와 접촉하고 물리적으로 가까이 하려는 행동을 하려고 노력한다. 한편, 이러한 애착 행동의 초기 출현은 보편적이라 볼 수 있지만, 이후 애착 형성된 애착의 질에 있어서는 어머니가 제공하는 사회적 자극의 양과 질, 그리고 영아의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8). 즉, 어머니가 영아에게 적절한 사회적 자극을 제공하고 영아의 상태나 바램, 요구를 정확히 인식하고 영아의 경험을 확장해 줄 때, 질적으로 나은 애착이 형성될 수 있다.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영아는 어머니를 '안전기지'로 삼아서 어머니와 물리적으로는 분리되어 새로운 세상을 탐색하면서도 동시에 정서적으로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특히, 안정 애착을 형성한 영아는 어머니와 정서적인 교류가 가능해지면서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

고, 이를 조절하며 더 나아가서 어머니와의 정서적 관계의 질을 향상 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제까지 어머니와 영아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초기 영아와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이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Dunham & Dunham, 1992; Spencer & Meadow-Orleans, 1996)이나 인지발달에 미치는 영향(Messer, 1994; Rogoff, 1990)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졌으며, 이에 반해 정서적 측면과 관련된 영역에 대해서는 연구대상 수집의 어려움이나 측정도구의 한계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다수의 연구에서 다루어 지지는 못한 실정이다. 어머니와의 상호작용 시 영아의 측면에서 어머니와의 관계를 측정하고 이를 분석한 연구 또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영아의 역할을 측정한 연구들은 대부분 어머니와 영아의 다양한 상호작용의 유형(애정표현하기, 주의환기 시키기, 지시하기, 질문하기, 제안하기, 도움주기 등)을 구분하기 위해 특정한 행동의 빈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미시적인 빈도의 측정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정보를 주는 점에서 장점을 갖지만, 어머니와 영아 간의 관계의 질을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한계를 갖는다(Kochanska & Aksan, 2004).

이에 따라 어머니와 영아가 상호작용 시에 어떠한 정서적 교류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Biringen과 Robinson(1991)은 애착이론(Ainsworth et al., 1978)과 영아의 자율성을 촉진시키는 어머니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들(Emde, 1980; Mahler, Pine, & Bergman, 1975)을 근거로 하여 '정서적 가용성(Emotional Availability : EA)' 척도를 개발하였다. 정서적 가용성이란 지속적인 친밀함, 발달적 변화 등이 결합되어 정서와 양육자와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Emde

& Easterbrook, 1985). 정서적 가용성의 개념 구성의 기초는 애착 이론의 통합에 있다(Emde, 1980; Mahler, Pine, & Bergman, 1975). 정서적 가용성과 애착 모두 최적의 양육자의 행동이란 자녀의 신호를 읽어내고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 보았다는 점에서는 일치된 입장을 갖는다. 또한 정서적 가용성의 초기 연구(Mahler, Pine & Bergman, 1975)에 의하면 정서적 가용성의 개념은 영아의 자율적인 탐색적 활동을 촉진시키는 어머니의 '조용한 지지'행동으로 설명된다. 이는 애착 이론에서의 '안전 기지'개념과 유사하며 어머니의 '민감한 반응성'이란 사회성이나 온화함과 같은 타고나는 성격적 특질이 아니며 특정한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맞추어지고 해석된 반응이라는 점에서도 정서적 가용성과 애착 모두에서 강조된다. 그러나 이러한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개념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애착 행동은 위협적이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활성화 되지만 정서적 가용성은 일반적인 다른 상황(놀이, 학습 상황 등)에서도 밝혀질 수 있는 좀 더 넓은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정서적 가용성은 특히 Ainsworth의 애착이론을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애착의 개념과 구조에 대한 보충적 의미를 갖는다.

정서적 가용성과 관련된 초기 연구들이 그 정의와 개념을 구현하는데 집중되어 있다면 이후부터 최근까지 정서적 가용성에 대한 연구들은 정서적 가용성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위한 연구들(Biringen, Matheny, Bretherton, Renouf, & Sherman, 2000; Bornstein, Gini, Leach, Haynes, Painter, & Suwalsky, 2006; Bornstein, Gini, Suwalsky, Putnick, & Haynes, 2006; Ziv, Gini, Guttmans, & Sagi, 1997)과 취약 계층이나 다양한 문화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Bornstein et al.(2010)은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미국의 영아가 생후 5개월과 20개월이 되었을 때 어머니의 정서적 가용성을 측정하고 시간에 따른 안정성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대륙별, 국가별, 성별에 따라서 중간 수준의 안정성이 발견되었다. 이처럼 다양한 국가에서의 적용이 가능한 것은 정서적인 유대는 어머니-영아 관계의 핵심이며 이것은 범문화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Biringen(2009)은 밝히고 있다. 그 외에도 Cornish, Mchahon과 Ungergger(2006)는 우울증이 있는 어머니의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정서적 가용성을 이용하여 알아보았으며, 미국 외에도 아르헨티나, 이탈리아의 어머니와 영아를 대상으로 한 정서적 가용성의 경향성이 관한 연구(Bornstein et al., 2010)나 이스라엘의 키부츠 영아를 대상으로 연구한 Aviezer, Sagi, Joels와 Ziv(1999)의 연구 등이 이루어졌다.

Biringen, Robinson과 Emde(2000)는 어머니와 영아 간의 상호작용 시 어머니가 정서적으로 가용적일수록 이에 따라 영아의 정서적 반응성과 참여가 높아진다고 보았다. 영아기의 정서는 어머니에게 자신의 요구를 표현하고, 이후에는 어머니의 정서를 이해하는 것으로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어머니와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확장시켜 나가는데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어머니가 정서적으로 가용적일 경우 영아로 하여금 자율적 탐색을 증가시키게 되어 이후 영아가 맞이하게 될 새로운 것에 대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낸다(Emde, 1980; Emde & Easterbrooks, 1985).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민감하고, 영아에게 적절한 비계설정을 해 줄 수 있고, 영아의 활동을 존중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지 않을수록 영아로 하여금 어머니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하고 정서적 안정성을 도모한다. 이러한 어머니의 정서

적 가용성은 본능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Biringen, 2004). 즉, 정서적 가용성은 개인의 특정한 능력이 아닌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관계의 질의 발달을 의미한다. 연구 결과 정서적 가용성은 하나의 '특질(trait)'이 아니라 특정한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특성으로 밝혀졌다(Biringen, 2004). 그러므로 어머니의 정서적 가용성은 영아와의 관계 내에서 증진될 수 있으며 변화의 여지를 갖고 있다.

어머니의 정서적 가용성은 영아의 정서 조절(Field, 1994; Thompson, 2006)과 정서의 공유(Emde, 1980)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에서 영아의 정서적 반응성과 참여와의 관련성을 나타내게 된다. 출생 직후부터 나타나는 영아의 능동적 정서적 반응성과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에 있어서의 정서적 참여는 어머니로 하여금 영아를 보호하고 양육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며,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유대와 분리의 균형 있는 발달은 이후 안정적인 애착 형성의 선행하는 요인으로 어머니와 영아 간의 정서적 관계의 질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성을 갖는다(Easterbrooks, Biesecker, & Lyons-Ruth, 2000).

한편, 어머니의 정서적 가용성 외에도 영아기 기질 또한 영아의 정서적 반응성과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 어머니의 정서적 가용성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내재적으로 타고난 성향이라기보다는 영아와의 관계에서 조성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기질은 개인의 타고난 성향으로 특히,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는 생후 1년 동안 상당히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Emde, 1992; Worobey & Lewis, 1989).

영아의 기질과 영아의 정서적 반응성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Kim & Lee, 2008; Na, 2006), 영아의 기질 중 적응성, 주의 지속성, 긍

정적인 기분은 영아의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과 능동적인 정서 표현과 관련이 있었으며 주 양육자인 어머니를 포함하여 타인과의 놀이 시 적극적으로 놀이에 참여하는 정도를 예측하는 주요 요인이었다. 이에 반해서 부정적인 기분과 높은 활동성은 이후 문제 행동과 같은 부정적인 반응성을 설명하였다.

또한 영아의 어머니와의 활동 시 정서적 참여에 있어서 기질에 따라 상호작용을 달리 하는 것을 나타냈다. 기질적으로 위축되고 회피적 성향이 강한 영아일수록 새로운 장난감이나 놀이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어머니로부터 적절한 반응을 이끌어 내지 못한다(Blackford & Walden, 1998).

이처럼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속성인 기질은 영아의 정서적 반응성과 참여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며, 특정한 기질적 성향은 영아기에 그 영향력이 다른 발달 단계보다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질이 유전적인 성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관점(Buss & Plomin, 1984)에서 영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정서적 가용성 및 영아의 정서적 반응성과 참여 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 영아의 정서적 반응성과 참여에 대해 영아의 고유한 특성과 어머니가 조성해가는 정서적 가용성의 상대적 영향력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하는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영아의 성과 월령에 따른 영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정서적 가용성 및 영아의 정서적 반응성과 참여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영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정서적 가용성 및 영아의 정서적 반응성과 참여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생후 24개월 이내의 영아(남아 34명, 여아 26명)와 그들의 어머니 60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영아의 경우 총 60명 중 남아가 34명(56.7%), 여아가 26명(43.3%)로 남아가 더 많았다. 영아의 월령은 3개월 이상 12개월 이하가 27명(45.0%), 13개월 이상 24개월 이하가 33명(55.0%)였으며 영아 월령은 평균 14개월로 나타났다. 영아의 출생 순위를 살펴보면 첫째가 49명(81.7%)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어머니 연령은 31세 이상 35세 이하가 61.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30세 이하가 26.7%로 많았으며 어머니 연령은 평균 32세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고졸이하(18.3%), 대졸(73.4%), 대학원졸(8.3%)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상태로는 미취업 상태가 63.8%로 절반을 넘었으며 월 소득은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인 가구가 70.0%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영아의 주 양육자로는 어머니 본인이 55명(91.7%)로 가장 많았다. 이는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2. 측정 도구

1) 영아의 기질

영아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Infant Behavior Questionnaire(IBQ; Rothbart, 1981)을 Wui(1994)가 한국 영아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요인분석을 통하여 타당화를 거친 도구를 사용하였다. 영아의 기질은 긍정 정서 9문항, 주의지속성 6문항, 접근·철회 5문항, 부정 정서 9문항, 주의전환성 5문항, 활동성 4문항으로 구성된다. 본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

점 '매우 자주 그렇다'의 점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러한 성향이 높은 것으로 간주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영아의 기질 하위 영역 문항 별 신뢰도를 알아보면 긍정적 정서는 Cronbach's $\alpha = .87$, 주의지속성은 $\alpha = .89$, 접근·철회는 $\alpha = .85$, 부정적 정서는 $\alpha = .87$, 주의전환성은 $\alpha = .79$, 활동성은 $\alpha = .61$ 로 나타났다.

2) 어머니의 정서적 가용성

어머니의 정서적 가용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Emotional Availability Scale(EAS 4th edition; Biringen, 2008)에서 어머니의 정서적 가용성 차원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8년에 개발된 4판을 이용하여 어머니와 영아의 정서적 관계의 질을 알아보고자 한다. 1998년에 개발된 3판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4판(2008)과의 차이점은 각 하위 척도의 점수 범위의 차이가 있다는 점과 4판에서는 구조화된 코딩을 위하여 코딩 시트가 제공된다는 것이다. 또한 최신판에서는 정서적 가용성의 측정에 있어서 어머니 뿐만 아니라 보육 시설의 교사와 같은 어머니 외의 다른 성인에게도 척도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본 척도에서 어머니의 정서적인 가용성은 민감성(sensitivity), 비계설정(structuring), 비침입(nonintrusiveness), 비적대(nonhostility)의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7문항 총 28문항으로 각 영역의 점수 범위는 최소 7점에서 최대 29점의 범위를 갖는다. 어머니의 '민감성'은 정서적인 가용성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어머니가 영아에게 일관적으로 애정적인 정서를 표현하며, 영아의 신호를 정확히 지각하고 이에 대해 적절히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계설정'은 어머니가 영아에게 적절하게 안내를 제공하는지와 어머니의 다양한 시도가 어느 정도 성공하는 지에 대한 것이다. '비침입'은 어

〈Table 1〉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Variables	N(%)
Infant gender	Boys	34(56.7)
	Girls	26(43.3)
	Total	60(100.0)
Infant age	3 to 12 months	27(45.0)
	13 to 24 months	33(55.0)
	Total	60(100.0)
Infant birth order	First	49(81.7)
	Second or higher order	11(18.3)
	Total	60(100.0)
Mother's age	Less than 30 years	16(26.7)
	31 to 35 years	37(61.6)
	36 to 40 years	6(10.1)
	41 to 45 years	1(1.6)
	Total	60(100.0)
Mother's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e	11(18.3)
	Bachelor's degree	44(73.4)
	Graduate degree	5(8.3)
	Total	60(100.0)
Mother's employment status	Employed	19(31.7)
	Not employed	41(68.3)
	Total	60(100.0)
Monthly household income	1,000,000 to 2,000,000 won	4(6.7)
	2,000,000 to 3,000,000 won	15(25.0)
	3,000,000 to 4,000,000 won	27(45.0)
	More than 4,000,000 won	14(23.3)
	Total	60(100.0)
Primary caregiver	Mother	55(91.7)
	Grandmother	2(3.3)
	Other	3(5.0)
	Total	60(100.0)

머니가 영아가 주도적 상호작용을 수용하고, 독단적인 침입을 하지 않는 것이다. '비적대'는 어머니의 얼굴이나 목소리에서 부정적인 표현이

나타나지 않고, 영아에 대한 냉소적이며 존중하지 않는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각 차원별로 Emotional Availability Scale 매뉴얼

에서 제시한 점수를 근거로 각 총점으로 평정하였다. 어머니의 정서적 가용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제시된 놀잇감으로 20분간 어머니와 영아의 자유놀이를 통한 상호작용을 관찰하였다. 본 연구의 관찰항목의 신뢰도를 산출하기 위해 연구 대상의 10%인 6사례에 대해 어머니와 영아의 자유놀이 시 상호작용의 대화내용과 상황에 대하여 한글로 전사를 하여 기록한 후 영어로 번역을 한 스크립트와 녹화된 관찰 동영상과 코딩 결과를 연구자들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구축된 온라인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척도 개발자에게 전달하였고, 이후 얻어진 점수에 대해서 적률 상관계수로 신뢰도를 산출했다. 산출된 평정자간 신뢰도는 민감성 $r = .89$, 비계설정 $r = .85$, 비침입 $r = .79$, 비적대 $r = .87$ 로 나타났다.

3) 영아의 정서적 반응성과 참여

영아의 정서적 반응성과 참여를 측정하기 위하여 Emotional Availability Scale(EAS 4th edition; Biringen, 2008)을 사용하였다. 영아의 정서적 반응성(responsiveness)과 참여(involvement)의 두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7문항 총 14 문항으로 각 영역의 점수 범위는 최소 7점에서 최대 29점의 범위를 갖는다. 영아의 '정서적 반응성'은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정적인 정서 표현과 정서의 적절한 조절 및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반응성이 측정의 핵심 내용이며, 영아가 어머니와 상호적인 교류를 하려는 시도와 그 경향성을 측정한다. 영아의 '정서적 참여'는 어머니와 함께하려는 시도의 빈도와 강도 및 영아 자신의 참여 정도가 측정의 핵심 내용이며 놀이 시에 어머니에게 말을 걸고, 자신이 관심 있는 장난감을 보여주는 것과 같이 장난감 자체보다는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에 더 많은 관심을 두는 지를 측정한다. Emotional Availability Scale 메

뉴얼에서 제시한 점수를 근거로 각 차원별로 총점을 산출하였다. 영아의 정서적 반응성과 참여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제시된 놀잇감으로 20분간 어머니와 영아의 자유놀이를 통한 상호작용을 관찰하였다. 산출된 평정자간 신뢰도는 정서적 반응성 $r = .91$, 정서적 참여 $r = .92$ 로 나타났다.

3. 자료 수집 및 자료 분석

자료 수집은 연구자가 가정방문을 하여 어머니와 영아의 자유놀이를 20분의 비디오 녹화를 통한 관찰로 측정이 되었으며 매뉴얼에 제시된 코딩 시트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자는 2009년 4월 2일에서 2009년 4월 9일까지 미국 Boulder에서 개최된 워크샵에 참석하여 최소 24시간 이상의 연수를 통하여 정서적 가용성 척도의 사용에 대한 자격인증을 받았다.

예비조사는 15개월 영아 5명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통하여 실시되었다. 놀이의 지속시간, 연구자의 지시 사항에 대한 어머니의 이해도, 장난감의 유형과 자리 배치, 카메라의 조작 및 카메라에 의한 영아의 주의 분산 등 놀이 상황에서 예상되는 문제들을 점검해 보았다. 본 조사는 2010년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 간 연구자가 가정방문을 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으며 촬영에 대한 안내 및 준비, 놀이 장면 촬영, 질문지 작성 및 정리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촬영에 앞서 연구자는 어머니에게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가정에서 영아가 가장 편하게 놀이할 수 있고 주변에 자극물이 많지 않은 장소를 선택하여 카메라를 설치하였다. 총 20분간 놀이가 진행되었으며 제시된 놀잇감(손수건, 소꿉놀이 도구, 태엽을 감으면 이동하는 큰 거북이와 작은 거북이 쌍, 형겅으로 된 직육면체 공, 영아용 쌓기 놀이, 형겅으로 된 애벌

레 인형, 까꿍 놀이가 가능한 형질 책, 장난감 전화기)은 연구 대상의 발달 수준에 적합하도록 24개월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것들로만 구성하였으며 상호작용 시 다양한 주제의 놀이가 등장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대한 자료와 영아의 기질에 대한 자료 수집은 질문지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가정방문 시 상호작용 관찰 후 어머니에 의해 작성되고 수거되었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는 SPSS 12.0 program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의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및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영아의 성별과 월령에 따라 변인들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영아의 정서적 반응성과 참여를 설명해주는 관련 변인(영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정서적 가용성)들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영아의 성과 월령에 따른 영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정서적 가용성 및 영아의 정서적 반응성과 참여의 차이

영아의 성과 월령에 따라 영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정서적 가용성 및 영아의 정서적 반응성과 참여에서 평균 점수의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우선, 영아의 월령을 생후 12개월의 기준으로 상·하의 두 집단으로 나누어 월령의 수준에 따른 전체 측정 변인들 간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영아의 기질의 하위 변인 중에서는 긍정적 정서($t = -1.95, p < .05$), 주의지속성($t =$

〈Table 2〉 Comparison among overall variables by infants' age

Variables	Age		t	
	3-12 months (n=27)	13-24 months (n=33)		
	$M(SD)$	$M(SD)$		
Infant temperament	Positive emotionality	3.69(.66)	4.05(.76)	-1.95*
	Attention persistence	2.69(.79)	3.14(.75)	-2.26*
	Approach/withdrawal	3.37(.84)	3.10(.89)	1.11
	Negative emotionality	3.21(.65)	2.98(.74)	1.30
	Distractability	3.72(.84)	3.62(.56)	.50
	Activity	2.53(.56)	2.20(.60)	2.20*
Maternal emotional availability	Sensitivity	19.93(3.51)	22.64(3.75)	-2.87**
	Structuring	20.81(3.31)	22.39(4.07)	-1.62
	Nonintrusiveness	19.52(4.04)	19.97(4.83)	-.39
Infant emotional responsiveness & involvement	Nonhostility	25.15(2.67)	25.94(3.01)	-1.07
	Responsiveness	19.78(3.50)	22.42(3.61)	-2.86*
	Involvement	18.78(4.67)	21.12(4.51)	-1.97

* $p < .05$. ** $p < .01$.

-2.26, $p < .05$), 그리고 활동성($t = 2.20, p < .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영아의 월령이 높은 집단에서 긍정적 정서와 주의지속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활동성은 월령이 낮은 집단이 월령이 높은 집단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정서적 가용성의 하위 변인 중에서는 민감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t = -2.87, p < .01$), 영아의 월령이 높은 집단의 어머니의 민감성이 월령이 낮은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의 정서적 반응성($t = -2.86, p < .05$)이 월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월령이 높은 집단에서 영아의 정서적 반응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영아의 성별에 따라 두 집단 간 평균 점수의 차이가 있는 지를 비교한 결과 전체 연구 변인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

2. 영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정서적 가용성 및 영아의 정서적 반응성과 참여 간의 관계

1) 전체 측정 변인들 간의 관련성

영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정서적 가용성(민감성, 비계설정, 비침입, 비적대) 및 영아의 정서적 반응성과 참여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 상관 관계 분석을 하였다. 상관 관계 분석 결과는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영아의 월령은 영아의 정서적 반응성($r = .29, p < .05$)과 정서적 참여($r = .26, p < .05$)에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의 정서적 반응성과 참여를 중심으로 측정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영아의 정서적 반응성은 기질의 하

<Table 3> Correlations among all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Infant gender ³⁾	1.00													
2. Infant age	-.13	1.00												
<u>Infant temperament</u>														
3. Positive emotionality	.06	.16	1.00											
4. Attention persistence	-.05	.36**	.12	1.00										
5. Approach/withdrawal	-.08	.09	-.25	-.24	1.00									
6. Negative emotionality	.03	.26*	-.25	-.16	.30*	1.00								
7. Distractability	.19	-.07	-.09	.01	.04	.13	1.00							
8. Activity	.08	.28*	.01	-.26*	.20	.13	.11	1.00						
<u>Maternal emotional availability</u>														
9. Sensitivity	.10	.28	.43**	.27*	-.29*	-.40**	.17	-.06	1.00					
10. Structuring	.10	.19	.54**	.13	.36**	.49***	-.07	-.04	.72***	1.00				
11. Nonintrusiveness	.15	.02	.31*	.14	.38**	-.42**	.14	.12	.69***	.71***	1.00			
12. Nonhostility	-.02	.07	.32*	.01	-.27*	-.29*	-.12	.04	.54***	.71***	.59***	1.00		
<u>Infant emotional responsiveness & involvement</u>														
13. Responsiveness	.01	.29*	.48***	.29*	-.41**	-.54***	.04	-.06	.61***	.68***	.67***	.59***	1.00	
14. Involvement	.10	.26*	.50***	.13	-.45***	-.55***	-.05	.01	.58***	.62***	.68***	.64***	.68***	1.00

* $p < .05$. ** $p < .01$. *** $p < .001$.

³⁾ dummy-coded, 1=boys.

위 변인들 중 긍정적 정서($r = .48, p < .001$), 주의지속성($r = .29, p < .05$)과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접근·철회($r = -.41, p < .01$), 부정적 정서($r = -.54, p < .001$)와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다시 말해서, 영아가 긍정적 정서를 보이고 주의 지속성이 높을 수록 영아의 정서적 반응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영아가 위축되거나 회피할 수록 그리고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할 수록 영아의 정서적 반응성이 낮게 나타났다. 한편, 영아의 정서적 참여는 기질의 하위 변인들 중 긍정적 정서($r = .50, p < .001$)와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접근·철회($r = -.45, p < .001$), 부정적 정서($r = -.55, p < .001$)와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영아가 긍정적 정서보일 수록 영아의 정서적 참여가 높게 나타났으며 영아가 위축되거나 회피할수록 그리고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할 수록 영아의 정서적 참여가 낮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정서적 가용성의 하위 변인들과 영아의 정서적 반응성과 참여 모두에서 $r = .58$ 에서 $.72$ 사이의 범위로 정적인 상관이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p < .001$). 즉, 어머니가 민감할수록, 영아에게 적절한 비계설정을 해주고, 무리하게 유아의 놀이를 방해하거나 침해하지 않고, 적대적인 얼굴 표정이나 지루함, 무시와 같은 정서 표현을 하지 않을 수록 영아의 정서적 반응성과 참여의 수준이 높아짐을 나타냈다.

2) 영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정서적 가용성 및 영아의 정서적 반응성

영아의 성, 월령 및 영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정서적 가용성과 영아의 정서적 반응성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다중공선성 진단을 하였으며 그 결과 분산팽창인자(VIF)는 1.02~2.99로 기준치인

10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영아의 정서적 반응성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1단계에서는 독립변인으로 영아의 성과 월령을 투입하고, 2단계에서는 영아의 기질의 하위 변인들을 투입하였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어머니의 정서적 가용성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 1단계에서는 영아의 월령($\beta = .30, p < .05$)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아의 월령이 높을 수록 영아의 정서적 반응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한 설명력은 9%였다.

2단계에서는 영아의 기질의 하위 변인 중 부정적 정서($\beta = -.37, p < .01$)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다음으로 긍정적 정서($\beta = .32, p < .01$)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아의 부정적인 정서가 높을 수록 영아의 정서적 반응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아가 긍정적인 정서가 높을 수록 정서적 반응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추가되는 설명력은 41%였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어머니의 정서적 가용성의 하위 변인 중 민감성($\beta = .55, p < .001$)이 가장 큰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아의 기질의 하위 변인 중 부정적 정서($\beta = -.21, p < .05$), 어머니의 정서적 가용성의 하위 변인 중 비적대($\beta = .20, p < .05$)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민감성과 비적대성이 높을수록 영아의 정서적 반응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아의 부정적인 정서가 높을 수록 영아의 정서적 반응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추가되는 설명력은 27%였으며 총 설명력이 77%로 나타났다.

3) 영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정서적 가용성 및 영아의 정서적 참여

영아의 성, 월령 및 영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Table 4>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of infant temperament and maternal emotional availability on infant emotional responsiveness

Independent variables	Infant emotional responsiveness					
	Step 1		Step 2		Step 3	
	B	β	B	β	B	β
Infant gender	.37	.05	-.21	-.03	-.33	-.04
Infant age	.19	.30*	.07	.11	.03	.04
Infant temperament	Positive emotionality		1.66	.32**	.80	.15
	Attention persistence		.60	.13	.29	.06
	Approach/withdrawal		-.81	-.20	-.41	-.10
	Negative emotionality		-2.00	-.37**	-1.10	-.21*
	Distractability		.70	.13	-.05	-.01
	Activity		.50	.08	.14	.02
	Sensitivity				.54	.55***
Maternal emotional availability	Structuring				.18	.18
	Nonintrusiveness				.11	.12
	Nonhostility				.26	.20*
R ²	.09		.50		.77	
Δ R ²			.41		.27	
F	2.68		6.47***		13.70***	

* $p < .05$. ** $p < .01$. *** $p < .001$.

정서적 가용성과 영아의 정서적 참여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는 Table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영아의 정서적 참여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1단계에서는 독립변인으로 영아의 성과 월령을 투입하고, 2단계에서는 영아의 기질의 하위변인들을 투입하였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어머니의 정서적 가용성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 1단계에서는 영아의 월령($\beta = .27, p < .05$)이 영아의 정서적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단계에서 영아의 기질의 하위 변인 중 부정적 정서($\beta = -.38, p < .01$)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긍정적 정서($\beta = .31, p < .01$)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아의 부정적 정서가 낮고

긍정적 정서가 높을 수록 영아의 정서적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추가되는 설명력은 44%였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어머니의 정서적 가용성의 하위 변인 중 비계설정($\beta = .52, p < .01$)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비계설정이 이루어질 수록 영아의 정서적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추가되는 설명력은 25%로 총 설명력이 77%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영아의 성과 월령에 따른 영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정서적 가용성 및 영아의 정서

<Table 5>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of infant temperament and maternal emotional availability on infant emotional involvement

Independent variables	Infant emotional involvement					
	Step 1		Step 2		Step 3	
	B	β	B	β	B	β
Infant gender	1.27	.14	.64	.68	.32	.03
Infant age	.21	.27*	.12	.15	.12	.16
Infant temperament	Positive emotionality		2.03	.31**	.66	.10
	Attention persistence		-.31	-.05	-.15	-.03
	Approach/withdrawal		-1.38	-.28	-.70	-.14
	Negative emotionality		-2.54	-.38**	-1.09	-.16
	Distractability		.16	.02	.29	.04
	Activity		.99	.13	.47	.06
	Sensitivity				.23	.19
Maternal emotional availability	Structuring				.64	.52**
	Nonintrusiveness				.21	.20
	Nonhostility				.23	.14
R^2	.08		.52		.77	
ΔR^2			.44		.25	
F	2.59		7.09***		13.64***	

* $p < .05$. ** $p < .01$. *** $p < .001$.

적 반응성과 참여에서의 차이를 알아보고, 영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정서적 가용성 및 영아의 정서적 반응성과 참여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하여 요약하고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의 성과 월령에 따른 영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정서적 가용성 및 영아의 정서적 반응성과 참여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영아의 월령에 따라서 영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정서적 가용성 및 영아의 정서적 반응성과 참여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아의 기질의 하위 변인 중 긍정적 정서와 주의지속성, 활동성에서 월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우선, 영아의 월령

이 높은 집단에서 미소나 웃음으로 긍정적 정서를 나타내는 성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긍정적 정서는 출생 시에는 거의 드러나지 않지만, 생후 2, 3개월 경이면 관찰이 가능하며 그 이후로는 지속적인 증가를 나타낸다는 Rothbart (1989)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월령이 높은 영아의 집단에서 주의 지속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Ruff와 Rothbart(1996)의 연구에 의하면 주의 지속성은 생후 1년 동안 U자 형 발달을 나타내며, 구체적으로 생후 6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는 이러한 주의 지속성이 낮아지지만 이후 9개월에서 12개월에는 다시 주의 지속성이 증가한다고 보았다. 이렇듯 주의 지속성이 증가하는 것은 영아기 월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주의 실행 체계가 발달하게 되어 주의 집중이나 지속과 관

련된 기술이 능숙해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으로 설명된다. 활동성에 있어서는 영아기에는 각 소근육의 협응이 능숙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대근육을 사용하여 버둥대는 형태의 활동성이 높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IBQ에서 측정하는 활동성은 일상 생활에서 수유나 목욕시의 활동수준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영아기 수유나 목욕의 빈도가 영아기 후반보다는 초반에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어머니의 보고 시 절대적인 빈도수에 따른 지각의 차이로 인하여 월령이 낮은 영아의 활동성을 더 높게 측정했을 가능성에 의해서 결과의 해석에 있어서 주의를 요한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정서적 가용성의 하위 변인들 중 민감성에서만 영아의 월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영아의 월령이 높은 집단의 어머니가 더 높은 민감성을 보이며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아의 월령이 증가함에 따라 어머니의 다른 정서적 가용성의 하위 변인보다도 어머니의 민감성이 유의하게 증가했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바이다 (Biringen, Emde, Campos, & Appelbaum, 1995). 신체 발달과 관련해서는 Biringen 등(1995)의 연구에 의하면 영아가 걷기 시작하는 시점에 따라서 어머니의 정서적 가용성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특히 영아의 월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어머니의 민감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고 보고한다. 또한 영아기는 약 13개월 경 첫 단어를 말하기 시작해서 이후 24개월까지 급격한 언어발달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이 시기에 영아의 월령이 높아짐에 따라서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에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서 어머니와 영아 사이의 의사소통이 보다 원활해지기 시작한다고 볼 수 있으며 영아는 이전보다 더욱 명확한 신호를 보냄으로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영아의 정서적 반응성과 참여 모두에서 월령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영아의 월령이 증가할수록 능동적으로 어머니에게 반응하고 주체적인 행위자로서 자신의 주변 환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이 증가하였다. 이는 영아의 월령이 증가할수록 능동적으로 어머니에게 반응하고 주체적인 행위자로서 자신의 주변 환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이 증가함을 시사한다. 즉, 영아는 어머니에게 명확한 신호나 암시를 보낼 수 있게 되어 어머니와의 관계에 있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한 상호작용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

둘째, 영아의 성, 월령 및 영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정서적 가용성과 영아의 정서적 반응성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의 정서적 가용성 중 어머니의 민감성이 가장 큰 설명력을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는 영아의 기질 중 부정적 정서, 어머니의 정서적 가용성 중 비적대의 순으로 비슷한 수준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즉, 어머니의 민감성과 비적대가 높을수록 반응성이 높게 나타났다. 영아의 부정적 정서가 낮을수록 반응성이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정서적 가용성의 하위 요인 중 민감성과 비적대는 영아의 정서적 반응성을 유의하게 설명해주는 변인이었다. 영아의 정서적 반응성에 대한 어머니의 민감성의 설명력이 가장 크게 나타난 본 연구 결과는 어머니의 민감성이 영아의 정서적 가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Howes와 Obregon(2009)과 Biringen(2008)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어머니의 민감성이 영아의 정서적 반응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어머니가 민감하게 상호작용에 참여할수록 영아와 정서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영아가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고 그것을 조절하는 데에 있어서 어머니가 보이는 다양한 정서적 표현과 특유의 정서적 반응은 영아로 하여금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준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민감성이 낮거나 정서상의 문제를 갖고 있을 경우 영아와의 상호작용 시 어머니 스스로가 긍정적으로 정서를 표현하거나 조절하지 못하므로 영아 또한 이에 대해 적절한 정서적 반응을 나타내기 어렵다(Goodman & Gotlib, 2002). 어머니가 민감하게 영아를 대하고 이것이 시간에 따라 일관성을 가지게 될 경우 영아는 자신의 반응이 지속적으로 수용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상호호혜적 반응이 돌아올 것임을 신뢰할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영아는 자신의 정서를 좀 더 직접적이고 자유롭게 표현하여 어머니와의 정서를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서로 간의 정서적 가용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어머니가 민감하다는 것은 애정적인 정서를 적절한 수준에서 영아에게 표현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어머니가 애정적이라는 것은 영아에게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으로 친밀감을 나타내고 영아를 존중하며 수용하고 영아의 요구에 민감함을 나타내는 것이다(Campbell et al., 2004; Cohn & Campbell, 1992). 이렇듯 어머니가 애정적이고 수용적일 경우 영아는 정서적으로 안정되며 긍정적 정서를 많이 표현하지만, 어머니가 애정적이지 않으며 거부적일 때는 정서적으로 위축되며 불안정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Kochanska, 2001). 또한 Kogan과 Carter(1996)의 연구에서는 무표정 얼굴(still-face)상황 이후에 어머니와 영아의 놀이 상황에서 정서적 가용성 간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민감하지 못한 어머니의 영아들은 회피적이고 저항적인 행동을 보여 반응성이 낮은 반면, 민감한 어머니의 영아들은 그러한 행동이 적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여 어머니의 민감성이 영아의 정서적 반응성과 관련이 있음을 나타냈다. 국내 연구로는 Huh(2007)의 연구에 의하면, 어머니의 민감성을 증진시키는 중재적 효과를 알아본 결과, 어머니가 영아에게 애정적인 표현을 하고, 눈을 자주 맞추고, 미소를 짓는 행동의 빈도가 증가할수록 즉, 어머니가 민감성을 보일수록 영아는 어머니에게 시각적인 상호작용을 더 많이 하였으며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어머니에게 민감성을 향상시키는 중재를 한 결과 영아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모아 상호작용이 증진이 되었다는 연구결과들(Bang, 2000; Shin & Lee, 2003)은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어머니의 민감성이 영아와의 관계에서 영아의 관심과 정서적인 반응성을 이끌어 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을 시사한다.

어머니의 정서적 가용성 척도에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적대감 뿐만 아니라 은밀하게 나타나는 어머니의 감추어진 적대감 또한 중요한 요인으로 측정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특히 관찰자가 있을 경우 겉으로 드러나는 적대감을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머니의 잘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적대감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Biringen, 2009). 영아와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잘 드러나지 않는 적대감은 영아와 함께 있는 것이 지루하다고 표현하는 것이나 인내심 없이 영아를 대할 때 드러나게 되며 수동-공격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 또한 외현적으로 드러나는 적대감으로는 어머니가 원하는 방향으로 영아가 반응하지 않을 때 위협을 한다거나 영아를 놀리거나 모욕감을 주는 것과 같은 행동으로 나타난다. 또한 어머니의 비적대감이 높을수록 영아의 정서적 반응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어머니가 적대적일수록 이후 영아의 부정적인 정서

발달에 영향을 주고 낮은 정서적 가용성을 상호 간에 나타낸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Sessa, Avenevoli, Steinberg, & Morris, 2001). 뿐만 아니라 정서적 가용성 척도 3판(1998)을 이용하여 이야기 완성 과제에서 어머니와 유아 간의 정서적 가용성을 측정된 결과 어머니가 민감하지 못하고, 지루함이나 적대적인 감정을 나타내면 유아는 위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Min, 2009)와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어머니의 민감성과 비적대성 외에도 영아 기질의 하위 변인 중 부정적 정서가 영아의 정서적 반응성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가 정서적으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짜증이나 울음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 표현을 많이 할수록 영아의 정서적 반응성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영아가 부주의하고 자주 울거나 화를 내어 전반적으로 부정적 정서를 보이는 까다로운 기질을 나타낼 때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저항적인 반응을 나타냈다는 Lee와 Bates(1985)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그 다음으로 영아의 성, 월령 및 영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정서적 가용성 및 영아의 정서적 참여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의 정서적 가용성 중 비계설정이 영아의 성과 월령, 기질을 통제된 후에도 유의한 설명력을 나타냈다. 즉, 어머니가 영아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적절하게 영아와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지지적인 틀을 제공할수록 상호작용 시 영아의 참여가 높았으며 어머니가 언어적 그리고 비언어적 요소들을 이용하여 영아에게 적절한 안내를 제공하고 이러한 시도가 성공적일 경우 영아의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이 증진되는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어머니가 영

아에게 적절한 비계설정을 제공하는 경우에 어머니의 참여를 유도하는 반응을 나타낸다는 연구결과(Howes & Obregon, 2009; Senechal, Cornell, & Broda, 1995)를 지지한다. 정서적으로 가용한 어머니는 영아에게 적절한 한계를 설정하고 상호작용을 하며 영아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비계설정을 제시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다양한 시도가 성공할 확률이 높다. 이에 따라 영아는 이러한 어머니와 상호작용 시 자신의 장난감을 어머니에게 나누어 주거나 함께 책을 읽으려는 활동 등과 같은 참여가 두드러진다(Biringen, 2004). 특히, 이러한 영아의 정서적 참여는 어머니와의 놀이 상황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국내의 선행 연구들(Lim, 1999; Moon, 1994)에 의하면 어머니가 적절한 안내를 제공하고 영아와 함께할수록 영아 놀이의 수준이 높아지고 그 빈도 또한 증가함을 밝히고 있다. 반대로 어머니가 영아에게 적절한 비계설정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영아는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꺼려하여 참여의 수준이 낮아지거나 마치 어머니가 자신과 함께 있지 않는 것처럼 단독 놀이를 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또한 어머니가 정서적으로 영아와 함께 상호작용하지 않을 경우 영아는 부모의 요구를 무시하고, 몸의 위치를 어머니로부터 반대로 돌려 앉거나 강력한 저항을 하는 등과 같은 정서적 회피 행동을 보이게 된다.

종합해 보면, 본 연구에서는 영아가 어머니와의 상호작용 시 나타내는 정서적 반응성과 참여에 대해서 영아의 고유 특성인 성과 월령, 타고난 성향을 나타내는 기질과 지속적인 변화와 조성의 과정에 있는 어머니의 정서적 가용성 간의 관계를 밝히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그 결과 어머니의 정서적 가용성은 영아의 반응성과 참여에 대해서 가장 큰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영아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의 정서적 교류가 영아의 반응성과 참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밝힌다. 그러므로 어머니와 영아 간의 관계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어머니가 영아를 대하는 정서적 태도와 표현 방식에 유의해야 할 것이며 어머니의 민감성을 주축으로 하여 어머니의 비계설정과 비적대에 대한 중요성 또한 재조명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후속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 선정 및 자료 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총 60명의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연구 대상의 표집을 광범위하게 하여 일반화 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하며, 나아가 사회경제적 수준별 정서적 가용성을 비교하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결과 영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정서적 가용성과 영아의 정서적 반응성 및 참여 간의 관련성이 밝혀졌으므로 이후에는 이러한 관련성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종단적 설계를 통하여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24개월 이하의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와 영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어머니와 영아의 기술적인 상호작용이 아닌 정서적인 관계의 질을 고려한 척도를 이용하여 영아의 타고난 기질과 지속적으로 구성되는 어머니의 정서적 가용성 및 영아의 정서적 반응성과 참여 간의 관련성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 고 문 헌

- Ainsworth, M. D. S., Bleher, M. C.,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 Elbaum.
- Aviezer, O., Sagi, A., Joels, T., & Ziv, Y. (1999). Emotional availability and attachment representations in kibbutz infants and their mothers. *Developmental Psychology*, 35, 811-821.
- Bang, K. S. (2000). Effects of maternal role education program on the mother-infant interaction and infant develop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Biringen, Z. (2004). *Raising a secure child : Creating emotional availability between you and your child*. New York : Perigee/Penguin Group.
- Biringen, Z. (2008). *Manual for scoring the Emotional Availability Scales (4th ed.)*. Fort Collins : Colorado State University.
- Biringen, Z. (2009). *The Universal Language of Love*. Assessing relationships through the science of emotional availability(EA). Fort Collins, Co : EA Press.
- Biringen, Z., Emde, R. N., Campos, J. J., & Appelbaum, M. I. (1995). Affective reorganization in the infant, the mother, and the dyad : The role of upright locomotion and its timing. *Child Development*, 66, 499-514.
- Biringen, Z., Matheny, A., Bretherton, I., Renouf, A., & Sherman, M. (2000). Maternal representation of the self as parent : Connections with maternal sensitivity and maternal struc-

- turing.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2, 218-232.
- Biringen, Z. & Robinson, J. L. (1991). Emotional availability : A reconceptualization for research.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1, 3258-3271.
- Biringen, Z., Robinson, J. L., & Emde, R. N. (1998). *Manual for scoring the Emotional Availability Scales (3rd ed.)*. Fort Collins : Colorado State University.
- Blackford, J. U., & Walden, T. A. (1998). Individual differences in social referencing : Effects of temperamental fear on referencing, regulation, and parent messages.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21(1), 89-102.
- Bornstein, M. H., Gini, M., Leach, D. B., Haynes, O. M., Painter, K. M., & Suwalsky, J. T. D. (2006). Short-term reliability and continuity of emotional availability in mother-child dyads across contexts of observation. *Infancy*, 10, 1-16.
- Bornstein, M. H., Gini, M., Suwalsky, J. T. D., Putnick, D. L. & Haynes, O. M. (2006). Emotional availability in mother child dyads : Short term stability and continuity from variable-centered and person-centered perspectives. *Merrill-Palmer Quarterly*, 52, 547-571.
- Bornstein, M. H., Suwalsky, T. D., Putnick, D. L., Gini, M., Venuti, P., Falco, S., Helington, M., & Galperin, C. Z. (2010). Developmental continuity and stability of emotional availability in the family : Two ages and two genders in child-mother dyads from two regions in three count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4(5), 385-397.
- Buss, A. H. & Plomin, R. (1984). *Temperament :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Hillsdale, NJ : Erlbaum.
- Campbell, S. B., Brownell, C. A., Hungerford, A., Spieker, S. J., Mohan, R., & Blessing, J. S. (2004). The course of maternal depressive symptoms and maternal sensitivity as predictors of attachment security at 36 month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6, 231-252.
- Cohn, J. F. & Campbell, S. B. (1992). *Influence of maternal depression on infant affect regulation*. In D. Cicchetti & S. Toth (Eds.), *Rochester Symposium o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Depression*(Vol 4, pp. 103-130). Rochester, NY :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 Cornish, A., McMahon, C., & Ungerer, J. (2006). Maternal depression and the experience of parenting in the second postnatal year. *Journal of Reproductive and Infant Psychology*, 24, 131-142.
- Dunham, P., & Dunham, R. (1992). Lexical development during middle infancy : A mutually drive infant-caregiver process. *Developmental Psychology*, 28, 414-420.
- Emde, R. N. (1980). Emotional Availability : A reciprocal reward system for infants and parents with implications for prevention of psychosocial disorders. In P. M. Taylor (Eds.). *Parent-infant relationship*(pp. 87-115). Orlando, FL : Grune & Stratton.
- Emde, R. N. (1992). Social referencing research.

- In S. Feinman (Ed.), *Social referencing and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in infancy* (pp. 79-94). New York : Plenum.
- Emde, R. N. (2000). Next steps in emotional availability research. *Attachment and Human Development*, 2(2), 242-248.
- Emde, R. N., & Easterbrooks, M. A. (1985). Assessing emotional availability in early development. In W. K. Frankenburg, R. N. Emde & J. W. Sullivan (Eds), *Early identification of children at risk : An international perspective*(pp. 79-101). New York : Plenum.
- Field, T. (1994). The effects of mother's physical and emotional unavailability on emotional regulation. In Fox N. (Ed.).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 Biological and behavioral consideration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2-3 Serial No. 240), 209-227.
- Goodman, S., & Gotlib, I. (2002). *Children of depressed parents : Mechanisms of risk and implications for treatment*. Washington, DC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owes, C., & Obregon, N. B. (2009). *Emotional availability in Mexican-heritage low-income mothers and children : Infancy through preschool*. Parenting : Science & Practice.
- Huh, B. Y. (2007). A study on the effect of interventions to improve primiparous sensitivity to infant cu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Kim, N. S., & Lee, K. S. (2008). A study on the individual and environmental variables influencing toddlers' peer interaction styles.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8(1), 159-184.
- Kochanska, G. (2001). Emotional development in children with different attachment histories : The first three years. *Child Development*, 72(2), 474-490.
- Kochanska, G., & Aksan, N. (2004). Development of mutual responsiveness between parents and their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75(6), 1657-1676.
- Kogan, N., & Carter, A. S. (1996). Mother-Infant reengagement following the still-face : The role of maternal emotional availability in infant affect regulation. *Infant Behavior Development*, 19, 359-370.
- Lee, C. L., & Bates, J. E. (1985). Mother-Child interaction at age two years and perceived difficult temperament. *Child Development*, 56, 1314-1325.
- Lim, H. Y. (1999).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ymbolic play in 1 and 2-year-old toddlers : Blocks/house play. Unpublished master's thesis, Duks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Mahler, M., Pine, F., & Bergman, A. (1975). *The psychological birth of the human infant : symbiosis and individuation*. New York : Basic Books.
- Malatesta, C. Z., & Haviland. J. M. (1982). Learning Display Rules : The socialization of emotion expression in infancy. *Child Development*, 53, 991-1003.
- Messer, D. J. (1994).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 From social interaction to*

- language. Chichester : Wiley.
- Min, H. S. (2009). Story stem narrative responses of preschoolers : Association with the level of mother-child emotional availabil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Moon, H. J. (1996). A study on the development changes in pretend play from 20 to 35 months of ag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Na, Y. G.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Infants' Socio-emotional Ability, Their Temperament and Attachment. Doctoral Dissertati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ju, Korea.
- Rogoff, B. (1990). *Apprenticeship in thinking : Cognitive development in social context*.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Rothbart, M. K. (1981). Measurement of temperament in infancy. *Child Development*, 52, 569-578.
- Rothbart, M. K. (1989). Temperament and development. In G. A. Kohnstamm, J. E. Bates & M. K. Rothbart(Eds.), *Temperament in childhood*(pp. 187-247). New York : John Wiley & Sons.
- Ruff, H. A., & Rothbart, M. K. (1996). *Attention in early development : Themes and variations*.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Senechal, M., Cornell, E. H., & Broda, L. S. (1995). Age-related differences in the organization of parent-infant interactions during picture-book reading.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0, 317-337.
- Sessa, F. M., Avenevoli, S., Steinberg, L., & Morris, A., S. (2001). Neighborhood Cohesion as a Buffer Against Hostile Maternal Parenting.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8(1), 135-146.
- Shin, Y. H., & Lee, S. A. (2003). Effects of maternal education using Brazelton Neonatal Behavioral Assessment Scale on the mother-infant interaction. *Journal of Academy Child Health Nursing*, 9(1), 74-84.
- Spencer, P. E., & Meadow-Orlans, K. P. (1996). Play, language and maternal responsiveness : A longitudinal study of deaf and hearing infants. *Child Development*, 67, 3176-3191.
- Thompson, R. A. (2000). Early experience and socialization. In A. Kazdin(Ed.), *Encyclopedia of psychology*. Washington, DC., & New York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nd Oxford University Press.
- Tompson, R. A. (2006). The development of the person : Social understanding, Relationships, conscience, self. In W. Damon, & R. M. Lerner(Series Eds.), & N. Eisenberg(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6th ed., pp. 24-98). Hoboken, N.J. :John Willey & Sons.
- Worobey, J., & Lewis, M. (1989).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reactivity of young infa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5, 663-667.
- Wui, Y. H. (1994). A Study on the Validation of the IBQ Scale.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15(1), 109-125.
- Ziv, Y., Gini, M., Guttman, S., & Sagi, A. (1997). *Dyadic emotional availability and quality of infant-mother attachment : A three*

point longitudinal study.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Washington, D. C.

2011년 12월 31일 투고, 2012년 3월 15일 수정
2012년 3월 25일 채택